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사교육(및 여가시간)과 학생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

김 영 철**

논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체제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여가시간의 확보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통계적 상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사교육의 절대 시간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평일 사교육의 감소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일요일의 추가적인 여가시간 확보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통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 주제어: 사교육, 여가시간, 학생 만족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2, I3, H0

투고 일자: 2018. 4. 16. 심사 및 수정 일자: 2018. 6. 4. 게재 확정 일자: 2018. 6. 25.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5A8019101)이다. 본 논문의 작성에는 『나라경제』 2017년 3월호에 실린 ‘월화수목금금금...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라는 언론 기고문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중 저자가 직접 기술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밝혀 둔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yckim@sogang.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사회적 자원을 교육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경쟁적 입시체제로 인해 초래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 중심의 도구적 학습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양산해 오고 있다. 특히 일상화된 사교육은 가계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각 가정의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이삼식 외, 2009).¹⁾ 무엇보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개발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자기계발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연한 선행학습과 학원의 야간 수업들로 인하여 공교육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중한 학습시간에 따른 학생들의 피로도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경쟁적인 입시체제와 이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역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5~19세 청소년의 10.1%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며,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를 꼽은 바 있다.²⁾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사교육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설 영어교육업체에서 자사 회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2.1%가 내 아이가 사교육 없이는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사교육 강박증’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³⁾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되었지만, 전근대적 입시 풍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아니 오히려, 입시학원은 더욱 창궐하고 있고, 선행학습까지 만연하면서 요즘 학생

-
- 1) 기혼여성의 출산중단이유를 조사한 결과, “높은 자녀교육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높은 자녀교육 비용(25.1%), 계획한 만큼의 자녀를 다 낳아서(24.1%),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서(12.3%), 소득이 적어서(9.8%).
 - 2) 한편, 20~24세 청소년(대학생 등)의 자살 충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8.1%)’이 가장 컸으며, ‘성적 및 진학문제’는 단 11.0%에 그쳐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3) 본 설문은 ‘윤선생영어교실’이 2012년 5월 1일부터 10일 동안 자사 회원 학부모 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매일경제, 2012. 5. 29).

들은 과거보다 더 혹독한 ‘학습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형국이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해 졌고, 토요일·일요일까지도 학원에 ‘출석’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얼마 전 시행된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전체 국가 중 꼴찌로 확인된다(김미숙 외, 2013). 우리나라의 아동결핍지수 역시 54.8%로, 23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확인되었다. 14가지 결핍요소 중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정기적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이었다. 전체 응답 아동의 무려 52.8%가 ‘전혀 없음’이라고 답한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적정 여가시간의 부족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

이제까지 경제학계 내의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교육의 학업성취 효과를 평가하거나(김희삼, 2012; Kang and Ryu, 2013 등), 사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문제를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오성재 외, 2016; Kim et al. 2014 등).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내 ‘꼴찌’라는 보도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청소년기의 교육적 성취가 ‘장기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최근 김영철(2016)의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 검증된 바 있다.⁴⁾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사교육 혹은 이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학령기 이후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 사교육 참여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현재적’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지수와 어떠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이후의 삶의 만족도와도 상당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⁵⁾

4) 교육적 성취의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출신대학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장수명(2006), 이경희·김태일(2007), 김진영(2007), 김희삼·이삼호(2007) 등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 프리미엄 혹은 임금 ‘페널티’를 확인한 바 있으며, 오호용(2007)과 김진영(2011) 등은 개인의 능력을 통제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5)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대학생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중2 시기 만족수준별 대학교 1학년 시기의 만족률(‘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할 확률)을 확인해 보면, 매우 불만족(33.3%), 불만족(39.8%) 보통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특수한 입시경쟁 구도 하에서의 사교육 참여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혹은 행복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여가활동 결핍 문제가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가운데 여가시간의 확보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역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활용하였다. 당 자료는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의 6년간을 추적한 종단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표하는 중학교 2학년 자료와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자료는 평일/토요일/일요일로 구분하여 사교육 참여 시간 및 여가시간을 매해 설문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년 반복 설문하고 있어 그 효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분석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의 사교육 시간은 전반적인 만족도 형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고등학생과는 달리) 평일의 사교육 시간과 전반적인 만족도 사이의 부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과도한 평일 사교육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여가시간과 만족도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요일 여가시간의 추가적인 확보가 삶의 만족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업 성적의 상대순위와 학업부진 여부가 삶의 만족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

(48.2%), 만족(66.3%), 매우 만족(81.2%)으로 나타나 중학교 때의 삶의 만족도가 대학생 이후로도 상당부분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2 시기 만족수준별 대학교 1학년 시기의 만족률 역시, 매우 불만족(25.0%), 불만족(30.2%) 보통(45.5%), 만족(73.8%), 매우 만족(92.7%)으로 나타나 이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측면에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긍정적 효과가 포착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정책 및 기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정부들의 각종 입시관련 정책은 사교육 수요 경감에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했다. 이에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사교육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8년 서울시 의회에서 채택한 밤 10시 학원 심야영업 제한 조례 제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원(교습소)의 휴일휴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5월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실시한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 성인 응답자의 66.7%가 학원 휴일휴무제의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61.9%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러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 통제가 필연적으로 그 부작용 역시 동반하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 심야영업의 규제가 개인과외 확대 등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풍선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엄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만약 존재한다면 개인과외가 고액의 교습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계층 간의 기회의 차이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⁷⁾ 휴일의 사교육 참여를 전면 제한할 경우에도, 휴일을 활용하여 부족한 과목을 일부 보충하고자 하는 ‘선의’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학생들의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는 보다 커질 것이고 이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고

6)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본 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교육 체계 인식’, ‘사교육 실태’, ‘학원운영 시간 관련 제도 인식’과 ‘학원휴일휴무제 시행 효과’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화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7) 심야영업을 제한할 경우, 감독이 소홀한 개인과외로 사교육 수요가 이전될 수 있다는 논리가 풍선효과이다. 반면, 심야영업 제한 조치가 해당 지역 학생들의 경쟁적 ‘심야 사교육’ 수요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려 개인과외 수요 역시 동반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지닌다.

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화하고 있어, 주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교육 기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⁸⁾

따라서, 사교육 규제 정책의 수립은 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동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적 입시체제 하에서는 학업성적이 학생들의 '현재적' 삶의 만족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교육의 '효과적' 활용이 학업성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사교육 참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만 작동하리라고 예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실제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해당 자료의 특성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고등학생의 만족도에 관해 유사한 분석을 시도한다. 제Ⅴ장은 이상의 분석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Ⅵ장은 결론 부분이다.

Ⅱ. 분석자료 검토

우선 사교육 참여 관련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내의 주요 교육관련 통계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주말 및 심야 사교육 이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을 찾을 수 없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 등의 일부 자료에서는 주말 여가시간에 대한 설문이 존재하였으나, 사교육 참여 여부 관련 설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의 생활상을 조사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의 경우, 여가시간뿐만 아니라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사용한 시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각각 설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교육 참여 및 여가시간의 확보와 함께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복 혹은 만족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육관련 통계자료는 삶의 만족도 혹은

8) 또한, 주말 및 심야의 학원운영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이로 인한 영업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학원업계에서는 무리한 강의 일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등교 전 새벽시간대의 학원 교습 확대가 일례라 하겠다.

행복의 정도를 묻거나(예, 한국청소년패널, 서울교육종단연구 등), 학교 혹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예,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 등). 특히 휴일 사교육 및 여가시간의 크기를 설문에 포함시킨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를 5점의 척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정도 및 여가시간의 확보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기로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수차례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총 6년 간의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로서 지역별(특별시/광역시/도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표본은 전국의 3,449명의 청소년들이다. 조사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조사 시기는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이다.

본 패널자료의 설문에 포함된 ‘사교육 시간’은 학원, 과외 등을 위해 사용된 시간을 일컬으며, ‘여가시간’은 의식주 생활시간(수면, 식사 등), 공부관련 시간(학교수업, 개인학습, 사교육 등), 직업관련 시간(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TV 시청, 게임, 운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시간이 이에 해당한다.⁹⁾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성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차원에서 각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년이라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2003년)과 고등학교 2학년(2006년) 시기의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아

9) 만약 사교육 시간, 여가시간 간의 1:1 대체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사교육 시간과 여가시간을 각각 나누어 분석할 이유가 없다. 사교육 시간 증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 검증은 그대로 여가시간 감소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 검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둘 사이의 1:1 대체 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평일 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사교육 시간과 여타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의식주 시간(-0.20), 학교 수업 및 자습 시간(-0.13),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0.10), 여가시간(-0.30)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일요일 시간 활용 역시, 사교육 시간과의 단순 상관관계가 의식주 시간(-0.18), 학교 수업 및 자습 시간(-0.12),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0.09), 여가시간(-0.43)으로 나타나 1:1 대체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직 입시경쟁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본 패널의 조사시기가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초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분석대상으로 부적격하다. 중학교 3학년의 해당 시기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이고, 고등학교 3학년의 해당 시기는 수시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겹치는 시기여서 각 학생의 진학 목표 및 전략적 선택에 따라 사교육 및 여가시간 활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살펴보는 데는 중2, 고1, 고2 자료가 적합하며 본 분석에는 중2 및 고2를 대표 학년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⁰⁾

Ⅲ. 중학생의 만족도 분석

우선 중학생을 대표하는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해당 패널의 1차년도(2003년) 자료가 실증 분석의 대상이다.¹¹⁾

1. 중학생 자료의 기초통계량

본 자료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 및 그 기초통계량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¹²⁾ 삶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 해당 설문에서는 질문지의 맨 끝 문항으로 “학

10) 고1 자료를 가지고도 동일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고2 자료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패널자료로서의 장점을 살리고자 ‘횡단면’ 분석이 아닌 ‘패널분석(고정효과 혹은 임의효과 모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고등학교 진학 준비 및 진학한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사교육 수요 및 시간 활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중2부터 고2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패널자료 분석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추가적인 결과 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속칭 ‘중2병’이라 하여 중2 학생들의 사춘기 성향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향이 있으나, 본 자료의 분석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1과 중3 역시 시간활용의 측면에서는 중학생 전체의 대표성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용가능한 중2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12) 단, <Table 1>에 수록된 기초통계량은 관련 분석자료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리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일부 변수의 수치 누락,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활용된 관측치가 <Table 1>의 응답자 수와 400~500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증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량을 재집계하여도 평균 및 표준편차

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하는 편’ 혹은 ‘매우 만족’인 경우를 ‘만족(1)’으로 분류하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못하는 편’ 및 ‘보통’인 경우를 ‘비만족(0)’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약 55%의 중학생이 ‘만족’으로 분류되었다.

‘사교육의 시간’ 변수로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사교육 시간을 각각 활용하였다. 단, 극단적인 수치들(outliers)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평일 사교육이 10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 (혹은 일요일) 사교육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변수를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¹³⁾ 여가시간의 변수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하면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하루 여가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¹⁴⁾ 사교육 시간과 여가시간이 본 분석에서의 핵심 설명변수(variable of interest)라고 할 수 있다.

‘성적상위 백분위’는 자신의 학급에서 해당 학생의 등수를 해당 학급의 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꼴찌인 경우 백분위는 100이 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성적이 높다. 만족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성적 순위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적인 성적 값보다는 학급 내의 등수를 기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기본통제변수로 성별, 대도시 거주 여부, 읍면지역 거주 여부, 지역의 권역별 더미를 포함시켰다. 정확히 절반의 응답자가 남학생이었으며, 대략 절반(46%)의 학생들이 대도시(특별시 혹은 광역시)에 거주한다고 답하였다. 읍면지역 거주자는 13%에 그쳤다. 지역의 권역은 수도권(45.2%), 강원권(3.6%), 충청권(10.4%), 호남권(11.1%), 부울권(18.1%), 경북권(11.6%)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1, 2, 3, 4, 5, 6의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다.¹⁵⁾

등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13) 중학생의 ‘사교육 시간’ 변수에서 결측치 및 극단적 수치(outliers)로 분류된 관측치의 수는 각각 4개(평일), 10개(토요일), 13개(일요일)이며, 이는 전체 3,449개의 관측치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 본 패널 자료의 경우 일부 보정과정에서 시간이 음수(-)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 이들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 14) 중학생의 ‘여가시간 시간’ 변수에서 결측치 및 극단적 수치(outliers)로 분류된 관측치의 수는 각각 12개(평일), 15개(토요일), 27개(일요일)이며, 이는 전체 3,449개의 관측치 중 1% 미만에 불과하다.
- 15)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강원권은 강원도를, 충청권은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부울권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경북권은 대구, 경상북도를 포함하였다. 제주도는 단 개의 관측치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본 패널자료의 코드북 편제에 따라 부울권에 포함되었다.

‘가구 월 소득’은 100만원의 단위로 표기하였다. 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¹⁶⁾ 가구 월 소득 외에 가정의 배경을 통제하는 변수로서 다음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대졸 학력 여부, 친부모가 모두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손위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 (손위 유무), 손아래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 (손아래 유무),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지의 여부. 그리고, 변수 중 ‘손위 및 손아래 유무’는 손위와 손아래가 모두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각종 애로 사항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건강상태’, ‘심리상태’, ‘가계곤란’, ‘가정불화’ 및 ‘학업부진’의 애로를 각각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건강상태 애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심리상태 애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가계곤란 애로), 부모의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가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가정불화 애로),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학업부진 애로). 이들 모두 5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의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부모 애정)’,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부모 이해)’,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부모 대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부모 감독)’,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부모 욕설)’. 이들 역시 5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로서 선생님 및 교우 관계를 뺄 수 없다. 선생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변수로서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선생님 사랑,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 친구와의 우애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학교친구 어울림,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애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는 편이다(교우관계 애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끝으로 ‘친한 친구의 수’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친한 친구의 수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대치를 20으로 잡아 20명으로만 표기하였다.

16) 이로 인해 1개의 관측치가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실제로 ‘가구 월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도 208개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분석과정에서 제외된다.

〈Table 1〉 Variables and Basic Statistics: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Observ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Overall Life Satisfaction	3449	0.55	0.50	0	1
Tutoring Hours (Weekday)	3443	2.69	2.02	0	10
Tutoring Hours (Saturday)	3439	1.37	1.91	0	10
Tutoring Hours (Sunday)	3436	0.80	1.66	0	10
Leisure Hours (Weekday)	3437	4.74	2.52	0	14
Leisure Hours (Saturday)	3434	8.37	3.03	0	18
Leisure Hours (Sunday)	3422	10.50	3.43	0	18
Academic Percentile (%)	3269	45.97	27.96	2.17	100
Male	3449	0.50	0.50	0	1
Metropolitan Area	3449	0.46	0.50	0	1
Eup-Myeon Area	3449	0.13	0.34	0	1
Region	3449	2.88	1.93	1	6
Monthly Wage (Million Won)	3240	2.99	2.10	0.05	30
College Degree (Father)	3380	0.44	0.50	0	1
Biological Parents	3444	0.93	0.26	0	1
Elder	3426	0.46	0.50	0	1
Younger	3431	0.54	0.50	0	1
Elder and Younger	3422	0.09	0.28	0	1
House Ownership	3395	0.69	0.46	0	1
Health Trouble	3389	2.00	1.03	1	5
Mental Trouble	3365	1.61	0.86	1	5
Economic Trouble	3395	1.91	0.99	1	5
Family Trouble	3395	1.53	0.94	1	5
Academic Trouble	3408	2.17	1.01	1	5
Parents Affection	3448	3.71	0.93	1	5
Parents Understanding	3449	3.35	0.98	1	5
Parents Communication	3448	3.44	1.01	1	5
Parents Supervision	3449	3.13	1.05	1	5
Parents Curse	3448	1.71	0.96	1	5
Teacher Affection	3448	2.75	1.00	1	5
Friends Relationship	3448	3.92	0.86	1	5
Friends Trouble	3421	1.59	0.80	1	5
Number of Friends	3444	7.66	5.20	0	20

2. 중학생 자료 분석결과

일요일과 토요일의 사교육 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약 74%의 중학생들이 일요일에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대부분 4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55.3%의 중학생만이 토요일의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토요일의 경우, 일요일에 비해 사교육 참여 빈도도 크고 참여시간 역시 1~2시간가량 더 많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2~3시간 정도의 사교육 참여가 가장 빈도수가 크게 나타났다.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Table 2> Sunday and Saturday Tutoring Hours: Middle School Students

Tutoring Hours	Tutoring Hours (Sunday)				Tutoring Hours (Saturday)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0 Hour	2,541	74.0	74.0	54.0%	1,900	55.3	55.3	51.8%
up to 1 hour	193	5.6	79.6	55.4%	239	7.0	62.2	61.9%
up to 2 hours	252	7.3	86.9	57.1%	478	13.9	76.1	56.3%
up to 3 hours	144	4.2	91.1	62.5%	306	8.9	85.0	65.0%
up to 4 hours	128	3.7	94.8	57.8%	241	7.0	92.0	53.9%
up to 5 hours	74	2.2	97.0	60.8%	129	3.8	95.8	59.7%
up to 6 hours	54	1.6	98.5	57.4%	81	2.4	98.1	59.3%
up to 7 hours	19	0.6	99.1	57.9%	30	0.9	99.0	60.0%
up to 8 hours	15	0.4	99.5	60.0%	17	0.5	99.5	82.4%
up to 9 hours	10	0.3	99.8	70.0%	11	0.3	99.8	63.6%
up to 10 hours	6	0.2	100.0	66.7%	7	0.2	100.0	57.1%
Total	3,436	100			3,439	100		

Note: 'up to x hours' means 'greater than x-1 hours but no greater than x hours.'

다음으로 <Table 3>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9시간 초과에서 14시간 이하까지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7시간 초과에서 11시간 이하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토요일의 여가시간이 일요일의 여가시간보다는 적은 편으로 나타난다. 여가시간이 5시간 이하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일요일의 경우 9.3%, 토요일의 경우 17.7%에

그쳤고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최소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Sunday and Saturday Leisure Hours: Middle School Students

Leisure Hours	Leisure Hours (Sunday)				Leisure Hours (Saturday)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0 Hour	16	0.5	0.5	43.8%	25	0.7	0.7	56.0%
up to 1 hour	21	0.6	1.1	47.6%	25	0.7	1.5	56.0%
up to 2 hours	34	1.0	2.1	52.9%	55	1.6	3.1	63.6%
up to 3 hours	45	1.3	3.4	64.4%	91	2.7	5.7	57.1%
up to 4 hours	100	2.9	6.3	58.0%	183	5.3	11.0	61.7%
up to 5 hours	101	3.0	9.3	47.5%	229	6.7	17.7	56.3%
up to 6 hours	157	4.6	13.9	58.0%	324	9.4	27.1	54.3%
up to 7 hours	172	5.0	18.9	58.7%	317	9.2	36.4	65.0%
up to 8 hours	238	7.0	25.8	58.0%	467	13.6	50.0	54.2%
up to 9 hours	290	8.5	34.3	55.2%	400	11.7	61.6	59.0%
up to 10 Hours	372	10.9	45.2	54.6%	499	14.5	76.2	50.7%
up to 11 hours	353	10.3	55.5	56.7%	322	9.4	85.5	49.4%
up to 12 hours	519	15.2	70.7	51.8%	254	7.4	92.9	52.4%
up to 13 hours	281	8.2	78.9	60.5%	128	3.7	96.7	52.3%
up to 14 hours	413	12.1	90.9	52.8%	53	1.5	98.2	50.9%
up to 15 hours	159	4.7	95.6	56.0%	30	0.9	99.1	43.3%
up to 16 hours	98	2.9	98.5	50.0%	16	0.5	99.5	37.5%
up to 17 hours	33	1.0	99.4	69.7%	11	0.3	99.9	63.6%
up to 18 hours	20	0.6	100.0	50.0%	5	0.2	100.0	80.0%
Total	3,422	100			3,4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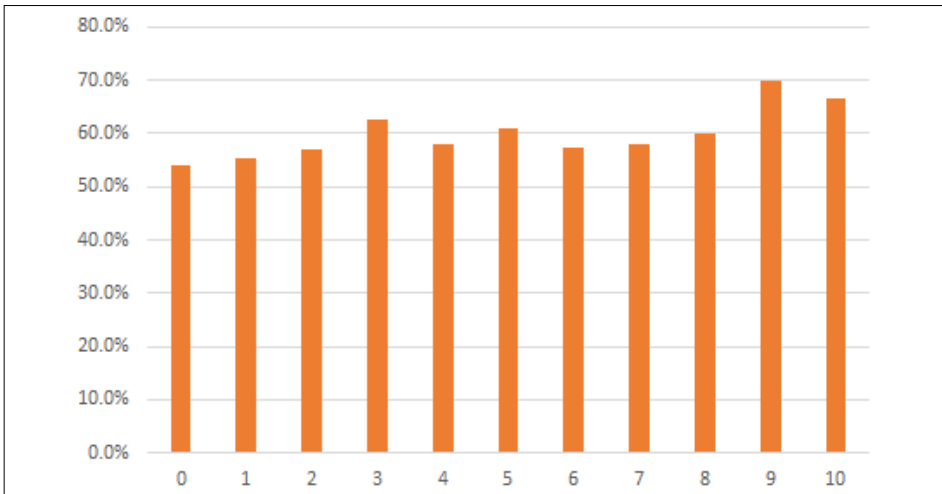
Note: 'up to x hours' means 'greater than x-1 hours but no greater than x hours.'

본 설문은 시기는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 전이므로 토요일 등교가 아직 일반적이었고 토요일이 휴일이라기보다는 평소보다 일찍 하교하는 날 정도로 여겨졌다. 토요일 하교 이후의 학원 등원 역시 폭넓게 용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시 휴일인 일요일의 사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에 각 사교육 참여 시간대별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만족를 분포를 표기하였다. (단,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각 시간

대별로 50명 이하로 줄어들어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시간대별로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 〈Figure 1〉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일요일의 사교육 시간이 많다는 것이 결코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를 하락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요일에 무려 7시간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생활에 대한 만족률은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이 전무한 집단의 경우 만족률이 단 54%에 그쳐 타 시간대 대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만족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적정’ 시간을 일요일 사교육에 활용한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의 사교육 참여자 혹은 ‘8시간 초과’의 과다 사교육 참여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토요일의 사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둘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포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 참여가 전무한 집단의 생활 만족률이 최저(51.8%)로 나오고, ‘7시간 초과 8시간 이하’의 과잉 사교육 집단의 생활 만족률(82.4%)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과잉 사교육이 학생들의 만족률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예단하긴 어렵다. 과잉 사교육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아, 과잉 사교육이 만족률에 실질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성적 및 가정배경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본 그래프에는 그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과잉 사교육과 만족률 사이의 실제적 연관성은 만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를 적절히 통제 한 상태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¹⁷⁾

17) 토요일 및 일요일 사교육이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면 주말의 사교육이 학업부담으로 해석될 이유는 없다. 주어진 통계자료에서 주말 사교육의 성격을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우선 지난 1년간의 사교육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주중, 주말 관계없이) 국어(62.5%), 영어(77.8%), 수학(79.0%)을 보인 반면, 음악(11.0%), 미술(13.2%), 체육(8.0%)로 나타나 사교육에서 예체능 참여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중 사교육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 사교육만을 소비하는 이들의 (지난 1년간) 과목별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국어(50%), 영어(68.8%), 수학(75.0%), 음악(8.3%), 미술(6.3%), 체육(6.3%)으로 나타나 역시 주말 사교육이 대부분 비예체능 중심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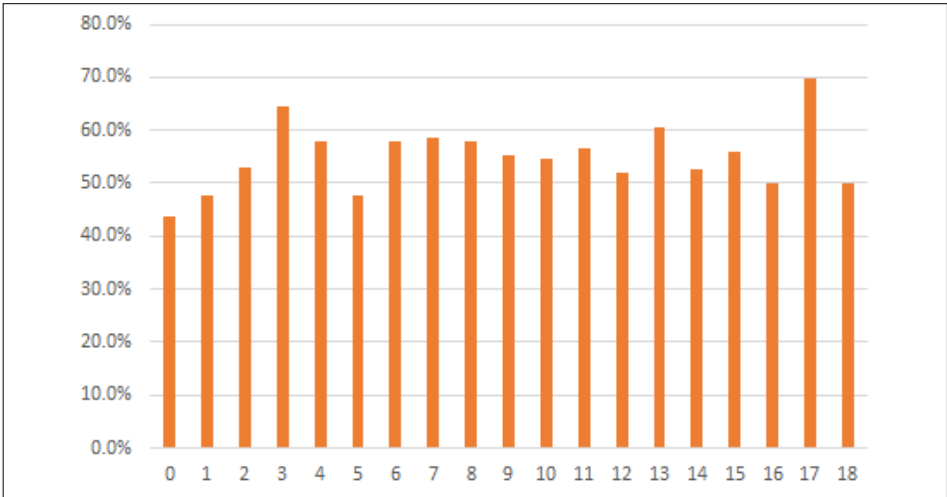
〈Figure 1〉 Satisfaction Rates by Sunday Tutoring Hours: Middle School Students



다음 〈Figure 2〉는 일요일의 여가시간대별로 학생들의 만족률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Table 3〉에 각 여가시간대별로 만족률을 표기하였고 이를 비교가 용이하도록 형상화한 것이다. (역시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혹은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각 시간대가 아닌 여러 시간대를 그룹으로 묶어서 살펴볼 경우 대략적인 수준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일요일 여가시간과 만족률 사이에는 뚜렷한 일차원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여가시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는 대체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략 3~8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진 집단이 만족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보다 여가시간이 큰 경우는 평균적으로 더 낮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토요일의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여가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률은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2〉 참조). 역시 본 결과를 가지고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만족률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거나 여가시간이 너무 많으면 만족률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요일에 여가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온전히 휴일의 안식을 즐기는 경우도 있겠으나) 평소 학업을 손에서 놓고 지내고 있거나 가정

에서 양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이 과잉 여가시간의 부정적 효과를 대변하기 보다는, 과잉 여가 집단의 평균적으로 낮은 성적수준 혹은 열악한 가정배경 등이 낮은 삶의 만족를 수치로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역시 이와 관련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Figure 2〉 Satisfaction Rates by Sunday Leisure Hours: Middle School Students



본격적인 실증 분석으로서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로짓모형(logit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교육 시간은 학습부담이라는 관점에서는 만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일종의 서비스 소비 혹은 학업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사교육과 만족률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 검증은 양측검증(two-sided test)을 실시하였다. 반면, 여가시간 그 자체로는 삶의 대한 만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증적 검토에서는 여가시간과 만족률 사이의 긍정적 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에 여가시간과 만족률 사이의 상관성 검증은 단측검증(one-sided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만족률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회귀분석의 추정 결과이다. 도표에서 bold체로 표시된 값이 한계효과이다. 즉, 설명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혹은 더미변수인 경우 0에서 1로 바뀔 때) 만족률이 어느 정도 증가(감소)하는 지를 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사교육시간, 여가시간 등 핵심 설명변

수들과 함께 각 학생의 주요 배경변수만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2/3/4는 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통제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모형 2는 핵심 설명변수로서 평일/토요일/일요일 사교육 시간만을 사용하였고, 모형 3은 핵심 설명변수로서 평일/토요일/일요일 여가시간만을 사용하였다. 모형 4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여가시간이 모두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 중에는 평일의 사교육 시간만이 삶의 대한 만족 여부와 부정적 상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사교육이 1시간 늘어나는 경우 (모형 4를 기준으로) 만족률이 2.07%p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가시간 중에는 일요일의 여가시간만이 만족률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요일 여가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삶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모형 4를 기준으로) 0.64%p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일요일의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만족률 경감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수강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 중학생들에게 평일 사교육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주는 것은 만족률 제고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만족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요일에 과다한 학습을 억제하고 적당한 여가를 누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학생의 만족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만약 향후 일요일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이후 중학생의 만족률이 상승한다면, 이는 사교육 시간을 줄이는데 따른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요일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한 데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분석의 결과가 일요일의 사교육 자체를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에 적정 사교육을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양질의 여가를 누릴 수 있다면 중학생의 만족률 측면에서는 일요일의 사교육 참여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기본 통제변수 중 성별과 대도시 거주 여부가 중학생의 만족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타 주요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에 비해 무려 17%p가량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각 변수의 평균적 수치에서의 만족률(중간치 만족률, <Table 4> 하단 참조)이 6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수준의 영향이다. 실제로 각 성별 만족여부를 확인해 보면, 남학생 응답자 중 62.8%가 ‘만족’ 혹은 ‘매우 여부’이라고 답한 반면, 여학생 응답자 중에는 이 비율이 단 47.4%에 그치고 있다.¹⁸⁾ 거주지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약 4.5%p가량의 만족률 증가효과가 확인된 반면, 읍면지역 거주라고 하여 (중소도시 대비) 만족률 측면에서의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타 성적 백분위, 각종 애로사항,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등도 중학생의 만족률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백분위’가 10%p 증가할 때 1.7%p 만큼의 만족률 제고효과가 관측되었고, 여러 애로사항 중에는 건강상태, 가계곤란, 학업부진 등이 만족률을 하락시키는 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학업부진에 따른 애로가 삶에 대한 만족도의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청에 따르면 ‘학업부진 애로’ 5단계 중 한 단계 상승시, 무려 10%p 가량의 만족률 하락이 관측되었다.¹⁹⁾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의 이해’,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감독’ 등이 모두 만족률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욕설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부모의 이해’가 중학생의 만족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5단계의 ‘부모의 이해’에서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약 7%p 가량의 만족률 제고효과가 관측되었다. ‘선생님의 사랑’과 ‘학우들과의 관계’ 등도 만족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약 5%p가량의 만족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18) 김영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해 6.2%p만큼의 만족률 증가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청소년기의 성별 효과와 전혀 상반된 양상이 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보다 종합적인 실증분석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19) <Table 4>의 일부 회귀모형에서는 ‘친부모 여부’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수로 나오는데, 이것이 친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읽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회귀식 내에 부모와의 관계 변수(가정불화, 부모 애정, 부모 이해, 부모 대화 등)가 폭넓게 포함됨에 따라 친부모가 아닐 경우의 부정적 영향이 모두 이들 변수들에 적극 반영된 데 따른 기술적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로 회귀식에서 ‘가정불화 애로’ 변수 하나만 제거해도 ‘친부모와의 동거’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사라져 버린다. 또한, 단순 만족률만을 집계해 보면, 친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0.8%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인 43.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Table 4> Logit Analysis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Rates: Middle School Students

Dependent Variable: Overall Life Satisfaction (Logit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Tutoring Hours (Weekday)	-0.044 [0.029]	-1.09	-0.061** [0.028]	-1.46			-0.086*** [0.033]	-2.07
Tutoring Hours (Saturday)	0.018 [0.035]	0.45	0.038 [0.033]	0.92			0.039 [0.040]	0.95
Tutoring Hours (Sunday)	0.019 [0.034]	0.48	-0.022 [0.034]	-0.54			0.008 [0.038]	0.20
Leisure Hours (Weekday)	-0.044 [0.022]	-1.07			0.000 [0.021]	0.00	-0.036 [0.025]	-0.86
Leisure Hours (Saturday)	-0.012 [0.021]	-0.29			-0.008 [0.020]	-0.19	0.009 [0.025]	0.22
Leisure Hours (Sunday)	0.023(*) [0.016]	0.57			0.023(*) [0.017]	0.56	0.027(*) [0.019]	0.64
Academic Percentile (%)	-0.015*** [0.002]	-0.38	-0.007*** [0.002]	-0.18	-0.007*** [0.002]	-0.16	-0.007*** [0.002]	-0.17
Male	0.644*** [0.081]	15.67	0.718*** [0.095]	17.21	0.699*** [0.096]	16.74	0.699*** [0.096]	16.73
Metropolitan Area	0.208** [0.086]	5.09	0.172* [0.096]	4.16	0.186* [0.097]	4.48	0.186* [0.097]	4.49
Eup-Myeon Area	-0.042 [0.127]	-1.02	-0.023 [0.145]	-0.55	-0.026 [0.145]	-0.63	-0.06 [0.146]	-1.45
Monthly Wage (Million Won)	0.045** [0.021]	1.10	0.036 [0.024]	0.88	0.035 [0.024]	0.84	0.038 [0.024]	0.92
College Degree (Father)	0.139 [0.086]	3.41	0.076 [0.097]	1.84	0.072 [0.097]	1.73	0.070 [0.097]	1.69
Biological Parents	0.038 [0.168]	0.94	-0.286 [0.198]	-6.72	-0.35* [0.199]	-8.15	-0.332* [0.199]	-7.74
Elder	0.010 [0.150]	0.24	-0.078 [0.169]	-1.89	-0.068 [0.170]	-1.65	-0.07 [0.170]	-1.70
Younger	0.023 [0.148]	0.57	-0.044 [0.167]	-1.07	-0.040 [0.168]	-0.96	-0.045 [0.169]	-1.09
Elder and Younger	-0.223 [0.209]	-5.52	0.103 [0.237]	2.47	0.109 [0.239]	2.62	0.101 [0.239]	2.41
House Ownership	0.140 [0.087]	3.45	0.023 [0.100]	0.57	0.017 [0.101]	0.40	0.033 [0.101]	0.81

Health Trouble		-0.125*** [-0.047]	-3.01	-0.124*** [-0.048]	-2.99	-0.124*** [-0.048]	-2.98
Mental Trouble		-0.069 [-0.058]	-1.67	-0.068 [-0.059]	-1.65	-0.066 [-0.059]	-1.60
Economic Trouble		-0.154*** [-0.054]	-3.72	-0.154*** [-0.054]	-3.72	-0.161*** [-0.055]	-3.89
Family Trouble		-0.08 [-0.057]	-1.93	-0.082 [-0.058]	-1.97	-0.083 [-0.058]	-2.00
Academic Trouble		-0.401*** [-0.055]	-9.7	-0.398*** [-0.055]	-9.61	-0.407*** [-0.055]	-9.82
Parents Affection		0.158** [-0.063]	3.83	0.150** [-0.064]	3.61	0.160** [-0.064]	3.85
Parents Understanding		0.31*** [-0.061]	7.49	0.306*** [-0.062]	7.39	0.301*** [-0.062]	7.28
Parents Communication		0.181*** [-0.055]	4.37	0.183*** [-0.055]	4.41	0.183*** [-0.056]	4.42
Parents Supervision		0.149*** [-0.047]	3.61	0.168*** [-0.047]	4.05	0.163*** [-0.047]	3.93
Parents Curse		-0.074 [-0.052]	-1.78	-0.084 [-0.052]	-2.02	-0.079 [-0.052]	-1.91
Teacher Affection		0.12** [-0.047]	2.9	0.120** [-0.047]	2.89	0.118** [-0.047]	2.85
Friends Relationship		0.19*** [-0.060]	4.59	0.198*** [-0.060]	4.78	0.201*** [-0.061]	4.86
Friends Trouble		-0.08 [-0.068]	-1.93	-0.075 [-0.068]	-1.81	-0.074 [-0.068]	-1.78
Number of Friends		0.014 [-0.009]	0.34	0.013 [-0.009]	0.32	0.014 [-0.009]	0.33
Region Controlled	Yes	Yes		Yes		Yes	
Constant	0.407 [-0.290]	-1.499*** [-0.516]		-1.822*** [-0.547]		-1.665*** [-0.563]	
Life Satisfac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56.9	59.1		59.3		59.3	
Observations	2960	2800		2783		2774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significance in an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IV. 고등학생의 만족도 분석

다음으로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분석 대상 자료는 200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들의 3년 후 설문응답이다. 중학교 2학년 분석자료의 전체 관측치가 3,449명이었던 반해, 고등학교 2학년 자료의 전체 관측치는 3,121명으로 3년 사이 약 9.5% (328명)의 관측치 이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시간불변 기초통계량(남학생 여부, 친부모 여부, 순위(손아래) 유무, 대도시 거주 여부, 읍면지역 거주 여부 등)을 살펴보면 집단 간 평균치에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 관측치 이탈로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²⁰⁾ 이에 본 분석에서는 무작위적(random) 관측치 이탈로 간주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1. 고등학생 자료의 기초통계량

해당 분석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 및 그 기초통계량은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²¹⁾ 중학생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여부가 본 분석의 주요 관심 변수이다. 전체적으로는 약 50%의 고등학생이 ‘만족’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55%로 나타난 중학생의 만족률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로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입시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여타 변수들의 경우 모두 중학생에 대한 분석 자료와 동일한 변수명을 사용하였다. ‘사교육의 시간’ 변수 역시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평일/토요일/일요일 사교육 시간을 각각 활용하였다. 단, 본 자료에 관해서도 극단적인 수치들(outliers)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평일 사교육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 (혹은 일요일) 사교육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변수를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²²⁾ 여가시간의

20) 두 집단 간의 기초통계량 비교는 <Table 1>과 <Table 5>의 평균값을 사용하기 바란다.

21) 단, <Table 5>에 수록된 기초통계량은 관련 분석자료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리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일부 변수의 수치 누락,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활용된 관측치가 <Table 5>의 응답자 수와 500-600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증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량을 재집계하여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간’ 변수에서 결측치 및 극단적 수치(outliers)로 분류된 관측치의 수는

〈Table 5〉 Variables and Basic Statistics: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s	Observ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Overall Life Satisfaction	3121	0.50	0.50	0	1
Tutoring Hours (Weekday)	3107	1.18	1.51	0	6
Tutoring Hours (Saturday)	3110	1.15	1.76	0	8
Tutoring Hours (Sunday)	3105	0.85	1.61	0	8
Leisure Hours (Weekday)	3109	3.72	2.52	0	12
Leisure Hours (Saturday)	3111	7.92	3.27	0	15
Leisure Hours (Sunday)	3118	9.75	3.85	0	18
Academic Percentile (%)	2813	40.83	24.32	2.13	100
Male	3121	0.50	0.50	0	1
Metropolitan Area	3121	0.46	0.50	0	1
Eup-Myeon Area	3121	0.13	0.33	0	1
Region	3121	2.93	1.93	1	6
Monthly Wage (Million Won)	2988	3.21	1.66	0	15
College Degree (Father)	3058	0.43	0.49	0	1
Biological Parents	3083	0.92	0.27	0	1
Elder	3093	0.46	0.50	0	1
Younger	3093	0.55	0.50	0	1
Elder and Younger	3093	0.09	0.28	0	1
House Ownership	3078	0.76	0.43	0	1
Health Trouble	3090	1.91	0.96	1	5
Mental Trouble	3093	1.70	0.88	1	5
Economic Trouble	3099	2.04	1.03	1	5
Family Trouble	3105	1.61	0.90	1	5
Academic Trouble	3107	2.14	1.03	1	5
Parents Affection	3120	3.76	0.84	1	5
Parents Understanding	3120	3.48	0.90	1	5
Parents Communication	3120	3.48	0.91	1	5
Parents Supervision	3120	3.37	0.95	1	5
Parents Curse	3120	1.67	0.89	1	5
Teacher Affection	3077	2.88	1.00	1	5
Friends Relationship	3077	3.93	0.82	1	5
Friends Trouble	3108	1.56	0.74	1	5
Number of Friends	3121	6.53	4.07	0	20

각각 14개 (평일), 11개 (토요일), 16개 (일요일)이며, 이는 전체 3,121개의 관측치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보정과정에서 설문결과가 음수로 표기된 경우가 17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변수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면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토요일의 경우는 15시간, 일요일의 경우에는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²³⁾

‘상적상위 백분위’는 앞서와 같이 자신의 학급에서 해당 학생의 등수를 해당 학급의 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기본통제 변수로서 성별과 함께 거주지 정보(대도시 거주 여부, 읍면지역 거주 여부, 지역의 권역별 더비)를 포함하였다.

역시 ‘가구 월 소득’은 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²⁴⁾ 앞서와 같이 가구 월 소득 외에 가정의 배경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대졸 학력 여부, 친부모가 모두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손위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 손아래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 손위 및 손아래 형제자매가 모두 있는지의 여부,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지의 여부.

앞서와 같이 ‘건강상태’, ‘심리상태’, ‘가계곤란’, ‘가정불화’ 및 ‘학업부진’의 애로를 각종 애로 사항으로 포함하였으며, ‘부모 애정’, ‘부모 이해’, ‘부모 대화’, ‘부모 감독’, ‘부모 욕설’이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포함되었다. 또한, ‘선생님 사랑’, ‘학교친구 어울림’, ‘교우관계 애로’ 및 ‘친한 친구의 수’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역시 친한 친구가 20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최대치를 20명으로 표기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각 학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평균 만족률을 <Table 6>에 정리해 보았다. 일반고의 문과 소속 학생들이 고등학생 전체의 평균치에 근사한 51.0%의 만족률을 보였다. 일반고 이과 소속 학생들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평균 54.2%의 만족률을 보였다. 대체로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로 진학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전반적인 성취 수준이나 가정 형편 등이 문과의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로서 설명되지 않는 이과 교육

23) 고등학생의 ‘여가시간’ 변수에서 결측치 및 극단적 수치(outliers)로 분류된 관측치의 수는 각각 12개(평일), 10개(토요일), 3개(일요일)이며, 이는 전체 3,121개의 관측치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 역시 일부 보정과정에서 설문결과가 음수로 표기된 경우가 2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24) 이로 인해 총 1개의 관측치가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실제로 ‘가구 월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도 104개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분석과정에서 제외된다.

과정의 특수성 혹은 이과 학생들만의 구성 상의 특성이 만족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과의 경우 남학생의 선호가 큰 편이어서 본 분석자료에서도 남학생의 비율이 62.3%에 이른다. 이는 문과에서의 남학생 비율인 4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Table 6〉 참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만족률이 대체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충분히 예견되다시피, 특목고 혹은 자사고 학생들의 만족률이 전체 학교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의 평균 만족률은 무려 63.1%에 이르렀다. 한편, 특성화고 학생들의 평균 만족률은 단 42.1%에 그쳐 일반고 등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6〉 Satisfaction Rates and Male Percentages by School Classifications

School Classification	Observations	Male Percentage	Satisfaction Rate
General High School (Liberal Arts)	1367	40.5%	51.0%
General High School (Sciences)	880	62.3%	54.2%
Special-Purpose · Autonomous Private School (Science, Language, Arts, Athletics, Autonomous Private, etc.)	84	42.9%	63.1%
Vacational High School (Industry, Commerce, Information, Agriculture, etc.)	748	54.4%	42.1%
Out of Regular Schools (Alternative School, Qualification Exam (GED), Arbeit, etc.)	42	50.0%	38.1%
Total Observations	3121	50.2%	49.9%

2. 고등학생 자료 분석결과

우선 고등학생의 일요일 및 토요일 사교육 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Table 7〉에 요약하였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고등학생의 주말 사교육 참여는 중학생의 참여 수준과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의 74.0%가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같이 고등학생의 약 72.5%가 동일하게 답하였다.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중학생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4시간 이하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토요일의 경우는 약 62.1%의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불참율이 오히려 중학생의 경우(55.3%) 보다 더 높았다. 역시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다소 더 길었으며, 빈도수 측면에서는 2~3

시간 정도의 참여가 가장 빈번하였다. 토요일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Table 7〉 Sunday and Saturday Tutoring Hours: High School Students

Tutoring Hours	Tutoring Hours (Sunday)				Tutoring Hours (Saturday)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0 Hour	2,251	72.5	72.5	48.4%	1,930	62.1	62.1	46.8%
up to 1 hour	88	2.8	75.3	45.5%	124	4.0	66.1	46.8%
up to 2 hours	310	10.0	85.3	51.3%	448	14.4	80.5	54.4%
up to 3 hours	165	5.3	90.6	54.5%	215	6.9	87.4	55.8%
up to 4 hours	140	4.5	95.1	60.0%	202	6.5	93.9	56.4%
up to 5 hours	68	2.2	97.3	50.0%	91	2.9	96.8	58.2%
up to 6 hours	54	1.7	99.1	63.0%	59	1.9	98.7	55.9%
up to 7 hours	14	0.5	99.5	57.1%	24	0.8	99.5	66.7%
up to 8 hours	15	0.5	100.0	60.0%	17	0.6	100.0	64.7%
Total	3,105	100			3,110	100		

Note: 'up to x hours' means 'greater than x-1 hours but no greater than x hours.'

다음 〈Table 8〉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9시간 초과에서 14시간 이하까지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7시간 초과 10시간 이하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집중도는 중학생의 표본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중학생 집단과 달리 여가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이 5시간 이하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중학생의 경우 각각 9.3% (일요일)와 17.7% (토요일)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17.0% (일요일)와 24.5% (토요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주말의 휴식을 '포기'하고 입시 준비에 전력하는 학생의 비중이 상당함을 방증한다.

다음은 일요일의 사교육 시간과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Table 7〉에 삽입된 생활만족률을 시간대별로 비교가 쉽도록 〈Figure 3〉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학생의 표본에서와 같이, 일요일 사교육 시간이 많다는 것이 생활에 대한 만족률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요일에 6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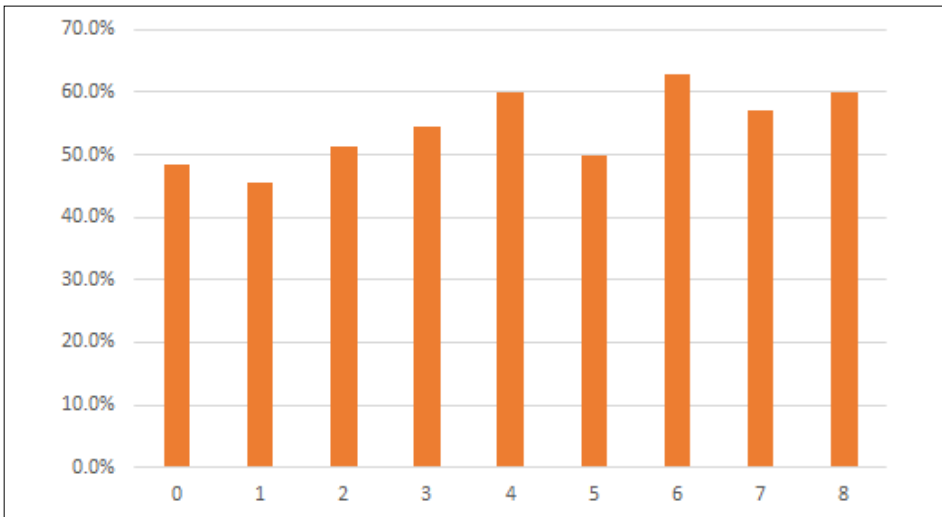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만족률이 평균 60% 수준을 유지하였다. 오히려 사교육이 전무하거나 1시간 이하인 경우에 만족률이 50% 미만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4시간 이하의 일요일 사교육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만족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이 아니라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의 사교육 참여자 집단으로 확인된다. 6시간 이상의 ‘과잉’ 사교육 집단에서도 만족률은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토요일의 사교육 시간과 생활만족률 간의 관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관관계를 근거로 일요일(혹은 토요일) 과잉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우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과잉’ 사교육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설혹

〈Table 8〉 Sunday and Saturday Leisure Hours: High School Students

Leisure Hours	Leisure Hours (Sunday)				Leisure Hours (Saturday)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Observations	Percentage	Accumulated Percent.	Satisfaction Rate
0 Hour	17	0.6	0.6	64.7%	27	0.87	0.9	40.7%
up to 1 hour	25	0.8	1.4	72.0%	59	1.89	2.8	61.0%
up to 2 hours	78	2.5	3.9	53.8%	121	3.88	6.6	57.9%
up to 3 hours	83	2.7	6.5	63.9%	118	3.78	10.4	50.8%
up to 4 hours	156	5.0	11.5	52.6%	209	6.7	17.1	54.1%
up to 5 hours	171	5.5	17.0	52.0%	231	7.4	24.5	49.4%
up to 6 hours	179	5.7	22.7	51.4%	272	8.72	33.2	55.9%
up to 7 hours	174	5.6	28.3	48.9%	250	8.01	41.2	48.8%
up to 8 hours	224	7.2	35.5	51.8%	385	12.34	53.6	51.9%
up to 9 hours	234	7.5	43.0	44.4%	333	10.67	64.2	46.2%
up to 10 Hours	345	11.1	54.1	50.7%	407	13.04	77.3	48.4%
up to 11 hours	208	6.7	60.7	49.0%	259	8.3	85.6	46.7%
up to 12 hours	420	13.5	74.2	48.3%	232	7.43	93.0	48.7%
up to 13 hours	176	5.6	79.9	50.0%	102	3.27	96.3	43.1%
up to 14 hours	387	12.4	92.3	48.8%	88	2.82	99.1	42.0%
up to 15 hours	102	3.3	95.5	38.2%	18	0.58	99.7	44.4%
up to 16 hours	88	2.8	98.4	52.3%	7	0.22	99.9	57.1%
up to 17 hours	35	1.1	99.5	40.0%	2	0.06	100.0	50.0%
up to 18 hours	16	0.5	100.0	56.3%	1	0.03	100	100.0%
Total	3,118	100			3,121	100		

Note: ‘up to x hours’ means ‘greater than x-1 hours but no greater than x hours.’

〈Figure 3〉 Satisfaction Rates by Sunday Tutoring Hours: High School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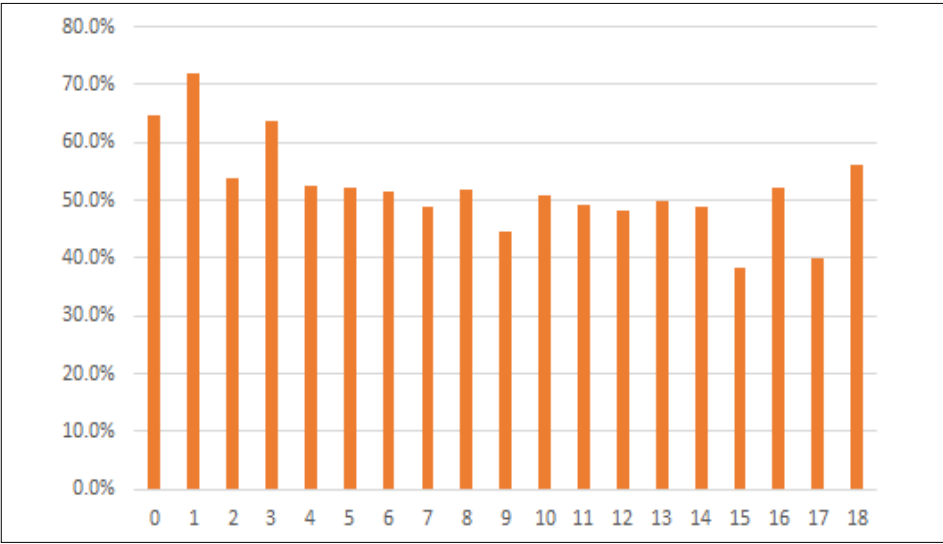
‘과잉’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지라도 그 효과가 이들 상관관계 상의 수치들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과잉 사교육과 만족률 사이의 연관성 추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처럼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²⁵⁾

다음으로 〈Figure 4〉는 일요일의 여가시간과 고등학생 만족률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Table 8〉에 표기된 각 여가시간대별로 평균 만족률을 그래프로 형상화한 것이다. (역시 여가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혹은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해석 상의 주의를 요한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요일의 여가시간과 생활만족률 사이에는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인 만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

25) 앞서 중학생 자료에서의 검토처럼, 주말 사교육이 예체능 중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토요일 및 일요일의 사교육의 성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통계자료에서 이를 명확히 가려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우선 지난 1년간의 사교육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주중, 주말 관계없이) 국어(20.1%), 영어(39.2%), 수학(44.4%)을 보인 반면, 음악(1.7%), 미술(3.0%), 체육(1.7%)로 나타나 사교육에서 예체능 참여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중 사교육에는 참여하지 않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 사교육만을 소비하는 이들의 (지난 1년간) 과목별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국어(19.8%), 영어(45.5%), 수학(69.0%), 음악(1.7%), 미술(1.7%), 체육(1.2%)로 나타나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주말 사교육이 대부분 비예체능 중심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났고,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률을 보인 것이다. 토요일의 여가시간과 생활만족률 간에도 역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본 결과만을 가지고, 일요일(혹은 토요일)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만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입시경쟁에 놓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요일(혹은 토요일) 여가시간이 너무 적은 학생들은 학업에 전력 질주하는 이들로서 학교에서의 성적분위가 매우 우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여가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는 평소 학업에 거의 손을 놓고 지내거나 입시경쟁에 크게 뒤쳐진 학생들로서 이로 인해 만족도가 크게 낮을 수 있다. 이에 여가시간과 만족률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은 보다 엄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Figure 4〉 Satisfaction Rates by Sunday Leisure Hours: High School Students



중학생 대상의 분석에서와 같이 각종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된 상태에서의 로짓모형(logit regression)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앞서와 같이 사교육과 만족률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 검증은 양측검증을, 여가시간과 만족률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 검증은 단측검증을 시도한다. 모형의 주요 결과는 〈Table 9〉에 요약하였다. 각 설명변수에 따른 한계효과는 bold체로 표기하였다. 앞서 중학생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모형 1은 각 학생의 주요 배경변

수(학교 유형, 성적상위 백분위, 부모 소득 등)만을 통제한 상태에서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모형 2/3/4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통제변수를 분석에 활용하되, 핵심 설명변수의 선택을 각기 달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형 2는 핵심 설명변수로서 평일/토요일/일요일 사교육 시간만을 사용하였고, 모형 3은 평일/토요일/일요일 여가시간만을 사용하였다. 모형 4는 사교육 시간과 여가시간이 모두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간은 평일/토요일/일요일 중 어느 것도 만족률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중학생 대상의 분석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입시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의 절대시간 자체는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편, 여가시간 중에는 일요일 여가시간과 만족률 간의 긍정적 상관성이 여전히 관측되었다. 일요일 여가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모형 4를 기준으로) 0.68%p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긍정적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은 여가시간의 확대가 만족률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평일 혹은 토요일의 여가시간이 삶에 대한 만족률과 뚜렷한 통계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과 대비하여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아무리 입시경쟁에 치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일지라도 최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양질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성별 및 대도시 거주 여부가 만족률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각종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에 비해 무려 10.5%p가량 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비대도시 거주에 비해 약 5.8%p가량의 만족률 증대 효과가 관측되었다.

이 외에 성적 백분위, 각종 애로사항, 부모 및 선생님과 관계, 교우관계 등도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성적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성적상위 백분위’가 10%p 증가할 때 1.4%p 만큼의 만족률 상승이 관측되었다. ‘학습부진의 애로’에 있어서도 5단계 중 한 단계의 상승시, 무려 4.73%p의 하락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심리상태의 애로’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

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다. ‘심리상태 애로’ 5단계 중 한 단계 상승시, 무려 4.6%p 가량의 만족률 하락이 관측된 것이다. 이는 입시경쟁 하에 놓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학생 시기와 크게 대비되는 영역은 가정 배경의 영향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계곤란 애로’의 한 단계 증가가 무려 3.89%p의 만족률 하락으로 연결되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54% 정도로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 ‘부모의 이해’ 및 ‘부모와의 대화’가 여전히 고등학생의 만족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감독’은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관측되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써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가정 배경 및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학생에 비해 교우 관계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우관계 애로’ 및 ‘친한 친구 수’의 만족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모두 극적으로 확인된다. ‘교우관계의 애로’가 한 단계 상승할 때 무려 6.5%p가량의 만족률 하락이 관측되고 있으며, ‘친한 친구 수’가 한명 증가할 때마다 0.48%p의 만족률 상승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가정배경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바뀐 반면,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점차 더 예민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울러 분석에 따르면, 재학하는 학교의 유형이 만족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만족률 비교에서는 특목고 및 자사고 재학생들의 만족률이 월등히 높았으나 가정배경과 부모 관계, 교우 관계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과 학생들에 비해 이과 학생들의 단순 평균 만족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역시 성별 등 각종 효과를 통제한 뒤에는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다만, 특성화고 재학시 만족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반고 문과를 기준으로 할 때, 특성화고 재학생의 만족률은 무려 6.24%p만큼 낮아졌다.

〈Table 9〉 Logit Analysis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Rates: High School Students

Dependent Variable: Overall Life Satisfaction (Logit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Tutoring Hours (Weekday)	-0.010 [0.035]	-0.24	-0.013 [0.037]	-0.32			-0.008 [0.038]	-0.20
Tutoring Hours (Saturday)	0.045 [0.039]	1.13	0.032 [0.041]	0.81			0.015 [0.043]	0.38
Tutoring Hours (Sunday)	-0.033 [0.038]	-0.82	-0.042 [0.040]	-1.06			-0.026 [0.042]	-0.65
Leisure Hours (Weekday)	0.008 [0.022]	0.19			0.022 [0.024]	0.54	0.024 [0.024]	0.59
Leisure Hours (Saturday)	-0.018 [0.019]	-0.46			-0.035 [0.021]	-0.87	-0.034 [0.022]	-0.85
Leisure Hours (Sunday)	0.001 [0.016]	0.02			0.029[*] [0.017]	0.73	0.027[*] [0.018]	0.68
General High School (Sciences)	0.082 [0.099]	2.04	0.077 [0.109]	1.92	0.073 [0.109]	1.83	0.078 [0.110]	1.95
Special-Purpose · Autonomous Private School	0.209 [0.278]	5.22	0.169 [0.306]	4.22	0.171 [0.307]	4.27	0.171 [0.308]	4.27
Vocational High School	-0.273** [0.119]	-6.80	-0.186 [0.125]	-4.65	-0.245* [0.132]	-6.12	-0.250* [0.134]	-6.24
Academic Percentile (%)	-0.010*** [0.002]	-0.26	-0.005** [0.002]	-0.13	-0.006*** [0.002]	-0.14	-0.005*** [0.002]	-0.14
Male	0.338*** [0.086]	8.43	0.433*** [0.097]	10.78	0.424*** [0.097]	10.57	0.422*** [0.097]	10.51
Metropolitan Area	0.238*** [0.090]	5.94	0.234** [0.100]	5.85	0.236** [0.099]	5.89	0.233** [0.100]	5.82
Eup-Myeon Area	-0.141 [0.134]	-3.52	0.037 [0.149]	0.93	0.024 [0.151]	0.59	0.018 [0.151]	0.46
Monthly Wage (Million Won)	0.058* [0.030]	1.45	0.035 [0.033]	0.87	0.038 [0.032]	0.95	0.039 [0.033]	0.97
College Degree (Father)	0.046 [0.091]	1.16	-0.008 [0.101]	-0.19	-0.019 [0.101]	-0.48	-0.014 [0.101]	-0.36
Biological Parents	0.041 [0.171]	1.02	-0.237 [0.193]	-5.90	-0.233 [0.194]	-5.80	-0.234 [0.194]	-5.83
Elder	-0.120 [0.171]	-2.99	-0.223 [0.191]	-5.57	-0.215 [0.191]	-5.36	-0.209 [0.192]	-5.21
Younger	-0.197 [0.169]	-4.91	-0.249 [0.188]	-6.22	-0.249 [0.188]	-6.22	-0.236 [0.189]	-5.89

Elder and Younger	0.247 [0.232]	6.17	0.394 [0.257]	9.77	0.392 [0.257]	9.71	0.365 [0.258]	9.05
House Ownership	0.032 [0.103]	0.80	0.048 [0.114]	1.20	0.044 [0.115]	1.10	0.043 [0.115]	1.08
Health Trouble			-0.071 [0.057]	-1.78	-0.066 [0.057]	-1.65	-0.065 [0.057]	-1.63
Mental Trouble			-0.179*** [0.068]	-4.48	-0.189*** [0.068]	-4.72	-0.185*** [0.068]	-4.61
Economic Trouble			-0.111* [0.058]	-2.78	-0.1* [0.058]	-2.50	-0.102* [0.058]	-2.54
Family Trouble			-0.071 [0.067]	-1.78	-0.09 [0.067]	-2.25	-0.087 [0.067]	-2.16
Academic Trouble			-0.197*** [0.054]	-4.93	-0.19*** [0.054]	-4.75	-0.189*** [0.054]	-4.73
Parents Affection			0.328*** [0.075]	8.21	0.347*** [0.075]	8.68	0.335*** [0.075]	8.37
Parents Understanding			0.296*** [0.072]	7.39	0.302*** [0.072]	7.54	0.299*** [0.073]	7.48
Parents Communication			0.148** [0.066]	3.70	0.142** [0.066]	3.55	0.148** [0.067]	3.69
Parents Supervision			0.055 [0.055]	1.38	0.048 [0.055]	1.20	0.049 [0.055]	1.23
Parents Curse			-0.042 [0.057]	-1.04	-0.036 [0.057]	-0.91	-0.045 [0.057]	-1.12
Teacher Affection			0.119** [0.048]	2.99	0.119** [0.048]	2.99	0.123** [0.048]	3.07
Friends Relationship			0.153** [0.064]	3.83	0.153** [0.064]	3.83	0.153** [0.064]	3.82
Friends Trouble			-0.253*** [0.077]	-6.33	-0.270*** [0.077]	-6.75	-0.260*** [0.078]	-6.50
Number of Friends			0.019 [0.011]	0.46	0.021* [0.011]	0.51	0.019* [0.011]	0.48
Region Controlled	Yes		Yes		Yes		Yes	
Constant	0.105 [0.289]		-2.308*** [0.546]		-2.406*** [0.564]		-2.394*** [0.571]	
Life Satisfac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49.7		49.7		49.9		49.7
Observations	2573		2529		2539		2517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significance in an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V. 정책적 함의 검토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부족한 여가 선행의 관점에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원 휴일휴무제’와 ‘학원 심야영업 제한’ 등에 있어서도 본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휴일 사교육과 삶의 만족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²⁶⁾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내의 극심한 경쟁, 사교육에 의한 권리침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권과 여가권, 건강권 등의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당 위원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²⁷⁾ 휴일에는 학원 수강도 쉬게 하자는 ‘학원 휴일휴무제’의 도입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 권고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경쟁적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당장 입시경쟁 가운데 놓인 학생들에게 주말의 학원 수업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한들 진정으로 삶의 만족과 ‘쉽’을 돌려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수행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사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포착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에서는 주말 사교육의 절대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의 양의 상관관계까지 확인되고 있다. 보다 엄밀한 회귀분석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타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 사교육 참여의 만족도 하락 효과는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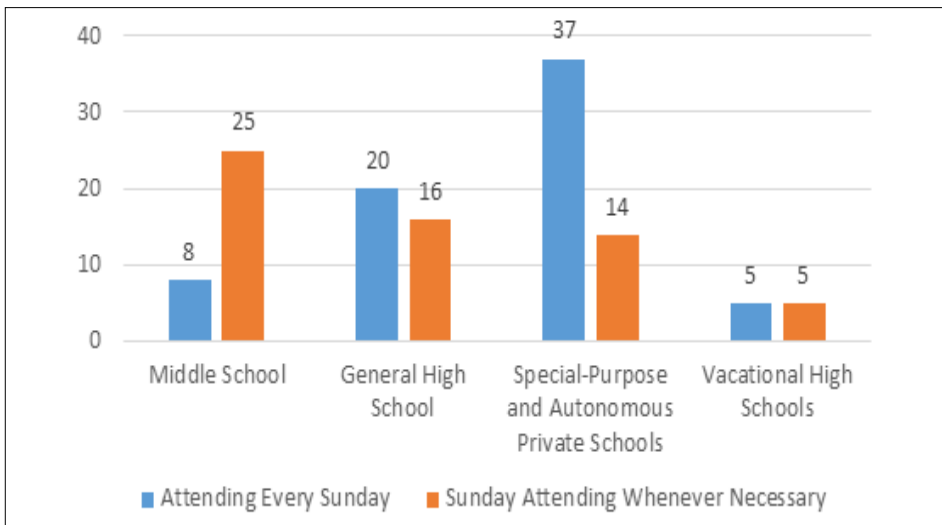
2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2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보건복지부, 2011).

본 추정 결과를 검증해 보고자 유사한 설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검토해 보았다.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원 일요 영입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2014년 10월)’로서 여기에는 서울시내 총 50개 중·고등학교의 4천여 학생들이 응답에 참여하였다.²⁸⁾ 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일요일 학원 수강 실태를 확인해 보니, 중학생은 약 8%, 고등학생은 약 20%가 매주 일요일 학원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참조). 특목고 및 자사고에 한정해서는 무려 37%의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에 등원한다고 답하였다. ‘필요시에 등원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일반고 재학생의 36%, 특목고(자사고) 재학생의 51%가 일요일에 (매주 혹은 때때로) 등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주 일요일에 등원한다는 수강생들의 체류시간을 살펴보니, 대략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주를 이루었다.²⁹⁾ 만약 일요일 학원 수강을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들 학원 수강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좀 나아질까?

〈Figure 5〉 Private Academy Attendance Rate on Sunday (Percentage)



Source: Student Survey on Private Academy Attendance on Sunday (2014).

28) 각 자치구별로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각 학교의 학년별로 한 학급씩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급의 총 수가 150개에 이른다.

29) 매주 일요일 등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50.6%, 일반고의 경우 53.9%가 2-4시간가량 체류한다고 답하였다.

다행히 해당 설문에는 학생들이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또한 학교유형별로 정리하여 〈Table 10〉에 요약하였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생의 81%, 고등학생의 75%가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22%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16%)’ 혹은 ‘전혀 취하지 못한다(6%)’고 답하였다. 이에 휴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 22% 학생들의 일요일 수강 실태를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단 32%만이 매주 일요일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는 필요시에만 등원하고 나머지 약 42%는 일요일에 전혀 등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일부 학생들(전체의 22%)의 일요일 휴식 부족 사태가 학원 수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요시에 등원한다는 이들까지 대략 절반을 ‘학원 탓’으로 굳이 돌리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학원 등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일요일 등원’ 때문에 휴식이 부족하다는 이들은 서울시내 전체 중·고등학생의 10% 이내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휴일의 학원 수강여부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휴식 여부와는 크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각의 요구대로 일요일의 학원 수강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 혹은 충분한 휴식 확보 차원에서의 소기의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최대 약 10%의 학생들이 학원 수강 금지에 따른 휴식 확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개인과외, 인터넷 수강 등으로의 학습 전환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휴일 사교육 금지가 적절한 시간 배분과 사교육 ‘선용’에 있어 결코 반갑지 않은 제도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에서 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물었는데, 매주 혹은 필요시에 일요일 학원 수강에 참여한다고 답한 이들은 약 65%가 관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즉, 일요일 학원 수강을 나름 잘 활용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일요일 학원수강 전면 금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10〉 Whether to Have a Sufficient Rest on Sunday: A Student Survey

Whether to Have a Sufficient Rest on Sunday	All Schools		Middle School		High School							
					General High		Special-Purpose · Autonomous Private		Vacational High		Subtotal	
	Obs.	Percent age	Obs.	Percent age	Obs.	Percent age	Obs.	Percent age	Obs.	Percent age	Obs.	Percent age
Strongly Agree	1, 237	29	689	32	333	28	78	16	137	33	548	26
Agree	2, 075	49	1, 046	49	577	48	255	53	197	48	1, 029	49
Disagree	659	16	293	14	199	17	113	24	54	13	366	18
Strongly Disagree	242	6	103	5	83	7	32	7	24	6	139	7
Total Observations	4, 213	100	2, 131	100	1, 192	100	478	100	412	100	2, 082	100

Source: Student Survey Resul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4).

2. 평일 사교육과 삶의 만족도

평일 사교육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하였다. 〈Table 4〉와 〈Table 9〉에 요약된 바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평일 사교육이 1시간 늘어날 때, 만족률은 2.07%p가량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들이 평일 사교육의 과다 남용에 노출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Table 1〉과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의 평일 사교육 시간은 고등학생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중학생의 평일 사교육 시간의 평균값이 대략 2.69시간으로 집계되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18시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 및 일요일 사교육의 경우에는 격차가 이 정도로 뚜렷하지 않았다.) 해당 설문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의 과반 이상이 평일 3시간 이상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일 5시간 이상을 사교육에 할애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약 10%에 이르렀다.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차원에서 운영하는 야간자율학습이 거의 전무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 바로 학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더욱 강한 듯하다. 나이에 따라 적절한 수업량이 정해져 있음을 고려하면,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미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중학생의 심야 학원수

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제한 시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 중학생의 심야 수업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북, 전남의 9개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개 밤 11시 혹은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평일 사교육의 축소는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동일 시간대의 중학생 대상 학원수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고등학생에게까지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 사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분석의 여러 회귀모형(〈Table 9〉의 모형 1, 2, 4)에서 ‘평일 사교육 시간’의 계수가 일관적으로 음수(-)를 보이고 있어,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영업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의 제한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의 단 5곳만이 밤 10시 이후의 고등학생 학원 수업을 금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권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개입이 개인과의 확대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기 보다, 학교교육에 대비한 자기 충전과 자기주도학습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⁰⁾

3.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일요일의 여가시간에 따라 삶

30) 각종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고등학생에 대한 심야 학원수업 제한 조치에 대해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61.9%가 현행 밤 10시 수업제한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적정 제한시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초등학생이 밤 8시 이후(65.3%), 중학생이 밤 9시 이후(39.3%) 혹은 밤 10시 이후(26.0%), 고등학생은 밤 10시 이후(46.7%)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와 <Table 9>의 모형 4를 기준으로 하면, 일요일 여가시간이 한 시간 증가할 때마다 중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약 0.64%p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약 0.68%p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동결핍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기적 여가활동’의 결핍이 최악이다(김미숙 외, 2013). <Table 10>의 설문조사에서는 약 70~80%의 학생들이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휴식’과 적극적인 활동으로서의 ‘여가 선용’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는 있겠으나 정작 적극적 의미의 여가 선용 및 문화생활의 추구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원 수강이나 개인과의 등의 일정에 밀려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여행이나 문화활동 등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학교의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 등이 주말을 통해서라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개방 등의 지원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쟁적 입시 풍토가 주말 여가 선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현재의 입시 풍토를 개선하여 청소년기의 삶이 입시 준비에 과하게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학생들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대략 절반가량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만족여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첫째, 충분히 예견되다시피, 학교에서의 성적과 학업부진 여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가정배경과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 셋째, 청소년기 만족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선생님의 사랑과 교우관계였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었다. 넷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 거주자의 긍정적

효과도 포착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사교육의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사교육 시간과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사교육의 시간이 삶의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오직 중학생의 경우에만 평일의 사교육 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부정적 상관성이 포착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문제를 반영하듯,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일요일의 여가시간 확대가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상의 연구결과는 통계적 상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향후 통계적 인과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실증분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심야 학원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가 (특히 중학생들에게) 삶의 만족도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불균등한 학원 심야영업 제한 시간을 보다 일관성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분석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양산 역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의 사교육 시간 축소가 만족를 증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학원 휴일휴무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들의 만족를 제고 효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가족 주말문화의 온전한 회복, 학생들의 일요일 여가선용 촉진, 과열 사교육 풍토의 억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유도 등 학원 휴일휴무제의 여타 도입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며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여전히 예상되는 부작용(학생의 학습권 제한, 학원의 영업권 침해, 개인과의 확대 가능성 등)을 충분히 넘어선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다수의 시민 및 학부모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본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 역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³¹⁾

31)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여론조사에서 66.7%의 응답자가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고, 2016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약 68%의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개진한 바

■ 참 고 문 헌

1. 김미숙 · 전진아 · 오미애 · 정은희 · 최은진 · 이봉주 · 김선숙,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3-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Translated in English) Kim, Mi-Suk, Jin-Ah Jeon, Mi-Ae Oh, Eun-Hui Jung, Eun-Jin Choi, Bong-Ju Lee and Sun-Sook Kim, *A Comprehensive Study on Child Life*, Policy Study, 2013-9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2. 김영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 『경제학연구』, 제 64권 제1호, 2016, pp. 107-150.
(Translated in English) Kim, Young-Chul, “Can Academic Credentials Determine Life Satisfaction?: The Estimates on the Non-monetary Effects of Academic Credential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4, No. 1, 2016, pp. 107-150.
3. 김진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2007, pp. 1-72.
(Translated in English) Kim, Jin-Young, “University Rankings and Labor Market,”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13, No. 3, 2007, pp. 1-72.
4. ———, “대학 서열과 임금격차 변화,”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Translated in English) ———, “Changes in University Rankings and Wage Gap,” *Linkage and Performance between Education and Labor Market (Ⅲ)*,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1.
5. 김희삼 · 이삼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7-08, 한국개발연구원, 2007.
(Translated in English) Kim, Hisam and Sam-Ho Lee, *Analysis on the Effects of Higher Education on Labor Market and Its Hierarchy Structure*, Policy Study, 2007-0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7.
6. 김희삼,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KDI 연구보고서 2012-09,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Hisam, *Estimation of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 Focusing on School Eff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Monograph, 2012-0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2.
7.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2011.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uth Korea), *The Consolidated 3rd and 4th Periodic Report t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nsideration Proposed by the Committee*, 2011.
8. 오성재 · 강창희 · 정혜원 · 주병기,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2016, pp. 1-32.
(Translated in English) Oh Sung-Jae, Changhui Kang, Hyewon Jeong and Biung-Ghi Ju, “Equality of Opportunity for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 Finance*, Vol 9. No. 4, 2016, pp.1-32.
9. 오호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2007, pp.87-118.
(Translated in English) Oh, Hoyoung, “University Hierarchy and Labor Market Outcome: Wage Differentials between Provincial and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Graduate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30, No. 2, 2007, pp.87-118.
 10. 이경희 · 김태일, “대학순위와 전공의 임금효과 -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5권 제3호, 2007, pp.167-197.
(Translated in English) Lee, Kyung-Hee and Tae-Il Kim, “Gender, College Ranking and Majors, and Earning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3, 2007, pp.167-197.
 11. 이삼식 · 최효진 · 오영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정책보고서 2009-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Translated in English) Lee, Sam-sik, Hyeo-Jin Choi, Young-Hui Oh, Mun-Hui Seo, Se-Gyung Park and Se-Rok Doh,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Childbearing, Policy Study*, 2009-8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12. 장수명,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제33권 제2호, 2006, pp.75-107.
(Translated in English) Jang, Soomyung, “An Analysis on Economic Return to University Rank,”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3, No. 2, 2006, pp.75-107.
 13. Kang, Changhui and Deockhyun Ryu, “Do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Raise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Economic Journal*, Vol. 27, No. 1, 2013, pp.59-83.
 14. Kim, Young-Chul, Young-Jun Kim and Glenn Loury, “Widening Gap in College Admission and Improving Equal Opportunity in South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Vol. 43, No. 2, 2014, pp.110-130.

MTWTFF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Are Students in South Korea Happy Enough?*

Young-Chul Kim**

Abstract

The competitive college entrance system and excessive use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may harm students'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using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dataset, we do not find that the time spent on the private tutoring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esent life satisfaction. Only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 confirm the plausibility that reducing the time spent on private tutoring during the weekdays may lead to the enhanced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we also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spent on leisure activities on Sunday and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private tutoring, leisure activities, student satisfaction

JEL Classification: I2, I3, H0

Received: April 16, 2018. Revised: June 4, 2018. Accepted: June 25, 201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8019101). This paper contains a part of the SERII research monograph titled "A Study on Operation Time and Price Control on the Shadow Education" and an article included in the monthly magazine NaRaGyungJe (2017 March). This research was also supported by a 2016 Research Grant from Sang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Mapu-gu, Seoul 04107, South Korea, Phone: +82-2-705-8512, e-mail: yckim@sogang.ac.kr